

“정 넘치는 전통시장서 가을 즐겨요”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에서 특색있는 가을 축제가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8개 시장에서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시장별로 특색있는 문화공연, 체험행사, 경품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자치단체 가을여행지, 테마축제 등과 연계한 자율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통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대인시장·양동건어물시장 등 지역 18곳서 축제 14일~내달 7일...공연·체험사진 공모전 등 다채

체험거리, 살거리를 제공한다. 광주 대인시장과 구례 지리산나들이장터에서는 야시장을 운영하고 광주 양동시장과 양동건어물시장에서는 차·건백축제를, 광주 1913송정역시장에서는 퓨전국악공연 등을 연다.

시장별로 버스킹, 각설이·예술단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고객과 소통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초·중등생 대상 ‘전통시장 체험사진 공모전’도 열린다.

‘깊어가는 가을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전통시장 나들이’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전통시장에서 보고, 먹고, 즐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12명에게는 교육감상, 지방중기청장상, 상인연합회장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진형 중기부 광주전남청장은 “최근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단순 거래장소에서 벗어나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올 가을, 가족 또는 연인들의 여행장소로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볼거리,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에 꼭 한번 기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추석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원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지급과 대금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로부터 위탁해 운영 중인 ‘전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및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와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명절 경영안정자금은 경영 악화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전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처음 반영된 것이며, 올해 설 명절에 이어 두 번째 지원이다. 지원조건은 업체 당 최대 3~5억원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전남도에 이자지원(1.6~3.0%)을 받아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분할상환을 하는 조건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오는 9월 10일부터 진흥원 본원(무안)과 동부출장소(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 신청을 하면 되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epa.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천시 원장은 “기업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텐데, 이번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기자 press2020@gwangnam.co.kr

담양연합사업단 맞춤형 컨설팅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담양군 봉산농협 회의실에서 컨설팅 전문위원, 지역농협 담당자, 딸기 공산출하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연합사업단에 대한 ‘산지유통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전남대학교 이정현 교수의 ‘딸기(양액재배) 정식 후 관리요령’에 대한 재배 기술교육과 전남농협 유통사업단 양상대 단장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산지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산지유통 현장컨설팅은 산지유통의 당면 현황과 과제를 정부·학계·농업계 등 8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컨설팅지원단의 지식과 경험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3개소에 이어 올해에도 3개소에 대해 산지유통 현장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올 겨울 인조 무스탕 어때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층 파슨스매장에서 가을의류 상품 및 올 겨울 유행할 인기 아이템 인조 무스탕을 선보였다. 인조 무스탕은 트렌디한 느낌을 물론 뛰어난 보온성으로 가볍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 겨울 완벽한 겨울룩으로 여성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두 종류로, 통은 36만9000원, 숏은 29만9000원에 판매한다.

비타민하우스, 추석 선물기획전

비타민하우스는 공식쇼핑몰 VHmail에서 추석맞이 선물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명절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 가장 많이 찾는 선물세트를 선별, 기능별·대상별·가격대별 다양한 선물구성을 마련했다.

또 소중한 사람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구매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물세트는 TV CF를 통해 널리 알려진 시베리안 차가버섯이다. 비타민하우스는 시베리안 차가버섯 3세트 구매 시 고급 선물포장과 함께 멀티바타민 세트(4개월분)를 3세트 증정하는 파격적인 3+3행사를 진행한다.

비타민하우스 추석 선물 기획전은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VHmail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즉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과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대우전자 전자레인지, 영국서 제품 우수성 인정

소비자 정보지 ‘위치’, ‘베스트 바이’ 제품 선정

대우전자 전자레인지가 유럽 3대 시장인 영국에서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우전자는 영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정보지 ‘위치(Which)’의 성능평가에서 자사 전자레인지 3개 모델이 해외 유명 가전 브랜드 제품을 제치고 ‘베스트 바이(Best Buys)’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자레인지 평가에서는 가열, 해동, 베이킹 성능 및 에너지 효율, 사용 편의성, 브랜드 신뢰도 등 총 11개의 항목을 평가한 가운데 대우전자 제품이 최고 추천 제품인 ‘베스트 바이(Best Buy)’로 선정됐다.

특히 스스로 전원을 차단해 대기전력의 누출을 막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기 전력 차단 기능으로 에너지 절감 항목에서



기술의 우수성도 인정 받았다. 대기전력 차단 기능은 10분간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스스로 전원을 차단, 평소 대기전력 차단을 위해 소비자가 제품 플러그를 뽑고 다시 꼽는 번거로움을 없앤 에너지 절감 제품이다.

이번 ‘베스트 바이’ 선정과 함께 대우전자는 ‘위치’ 제품 평가에서 지난 5년간 영국 전체 전자레인지 브랜드 중 3위를 차지하며 영국 소비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대우전자 전자레인지가 현지 경쟁사 제품들을 제치고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베스트 바이 제품으로 선정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선정으

로 대우전자의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상승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치’는 국제 소비자 테스트 기구(ICRT)에 소속돼 있으며 구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영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정보지. 매년 각 분야별 기술 전문가와 소비자 레포트를 바탕으로 높은 판매를 기록하는 제품들을 모아 객관적인 평가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여성복 브랜드 ‘S’ 론칭

첫 컨템포러리 장르... 기획·디자인·제작 등 직접 참여

신세계백화점이 신규 여성복 브랜드를 선보이며 브랜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소재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여성복 브랜드 ‘S’를 6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신규 여성복 브랜드 S는 지난 2016년 캐시미어전문 브랜드 델라라, 지난해 니트전문 브랜드 일라일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여성복 브랜드이자 첫 컨템포러리 장르 브랜드다.

지난해 9월부터 신규 브랜드의 기획, 디자인, 운영 등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1년 여간 론칭을 준비했다. 상품기획 및 디자인·제작·판매·브랜드까지 모든 과정을 백화점이 직접 참여한다.

S의 타겟 고객층은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연령대별로 블라우스, 재킷, 코트, 니트 등 총 100여 개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상품의 가격대는 블라우스와 바지

40만원대, 재킷 80만원대, 코트 150만원대로 책정했다.

신규 브랜드 S의 론칭을 맞아 특별한 행사도 준비했다.

이날부터 16일까지 10일 간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모든 구매 고객들에게 론칭 기념 ‘S-노트’(100명)를 증정하며,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실크 스카프(50명), 2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에르메스 향수(10명)를 나눠준다.

김경준 광주신세계 여성팀장은 “신세계백화점이 직접 만든 프리미엄 여성복 브랜드 S는 지난 2016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여성복 시장을 겨냥해 고객을 가장 잘 아는 백화점이 만든 브랜드”라며 “차별화 된 소재와 품격 있는 디자인을 앞세워 성장세의 국내 여성복 시장 선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목포벤처문화산업센터 입주자 모집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도내 특화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모집규모는 총 7개실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벤처동) 2개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5개실이다.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벤처동) 입주실 면적은 2개실 모두 38.25㎡로 동일하며, 입주보증금 120만원, 월 임대료는 6만 1940원(가스/전기요금 별도)으로 입주보증금은 퇴거 시 반환 가능하다. IT/SW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업공간에 여러 업체가 함께 입주해 사무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형태로 총 5개실을 모집한다. 공간

은 무료로 제공된다. 영상/방송, 전자출판업과 정보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창업넷(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 후 1인 창조기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4일(인창초)과 17일(목포센터) 각각 마감되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발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회의실, 휴게실 등의 부대시설이 제공되며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창업활동과 사업에 유익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를 원하는 자는 전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창업지원팀(061-280-7492, 7499)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MR-10과 쏘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